



신뢰받는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주)성도 GL/(주)솔루윈은 새로운 30년의 시작이라는 취지로 올해 'Dynamic SUNGDO 30+1'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1일부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성도와 솔루윈은 그동안 PS판과 CTP판, 필름을 비롯한 자재 및 소모품 등을 성도가 담당하고 CTF 및 CTP, 스캐너 등의 장비는 솔루윈이 맡아 왔으나,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PS판과 CTP판까지 솔루윈에서 맡는 이른바 디지털 토털 솔루션을 서비스하는 체제로 재편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책임자로 이도상 고문을 부사장 겸 디지털 사업본부장으로 임명하면서 새로운 체제를 구축했다.

본지에서는 오랫동안 인쇄업계에 종사해 온 이도상 부사장 겸 디지털사업본부장을 만나 그간의 활동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도상 부사장은 코사리베르만(주)에서 그래픽아트 사업본부장 및 이사로 근무한 바 있으며, 빅코오벳아시아(주) 대



기업만들고 원원 모색할 터

표를 역임하고 2004년 1월 성도GL/솔루원의 고문으로 추대돼 활동해 오다가 이번에 부사장 겸 디지털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업계 발전 위해 노력

“이번 조직개편은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영업 및 마케팅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해 결과에 책임을 지고 또한 대가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사장은 이번에 부사장 겸 디지털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소감과 조직개편의 배경에 대해 이와 같이 밝히는 한편, 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중점적으로 펼칠 사업은 역시 CTP의 보급에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도 급신장하고 있는 후지필름의 포토폴리머 CTP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

와 마케팅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는 국내외적으로 포토폴리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올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보이듯이 디지털사업본부의 강화는 곧 CTP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서멀방식의 CTP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대(2003년 3대)의 판매 실적을 기록한 후지필름의 포토폴리머방식 CTP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어떤 방식이든 장단점이 있는데 포토폴리머방식은 환경친화적이고 고품질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포토폴리머방식의 장점을 부각시켜 홍보하는데 전념할 계획입니다”

이 부사장은 인쇄업계가 CTP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성능이 뛰어난 장비의 선택과 이로 인한 우수한 품질의 인쇄물을 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그 역할을 솔루원이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객 서비스가 솔루원의 목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고객에게 고급기술력을 지원해 공급자와 인쇄업자들이 공동 발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 이와 같이 밝히면서 계속해서 ‘신뢰’를 강조하는 이 부사장은 경영진의 의도와 맞아떨어져 함께 일을 도모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사회적, 도덕적, 사업적인 측면에서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경영방침과 후지필름 본사의 강력한 지원으로 국내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사내·외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또한 판매전략을 세우기보다는 고객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는 이 부사

회갑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부사장은 젊은이들 못지 않은 향학열을 불태우고 있다. 이 부사장은 사이버대학에서 영어와 경영을 공부해 영어는 이미 학위를 받았고 경영도 학위를 받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관심분야에 대한 공부도 열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개인적인 지식습득에도 열심이지만 업계를 위한 지식습득도 게으르지 않다.



장은 2010년 정도에는 존경받고 인정받는 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솔루션은 성도에서 지난 1996년 설립된 시스템사업부를 1998년 성도시스템산업(주)로 창립하고, 지난 2002년 솔루션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뢰를 쌓는다는 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엔 이 부사장은 2010년경에는 그러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자조적인 인식 버리고 자부심 가져야

“사람은 늙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항상 학생의 신분으로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많이 아는 사람에게 배우며 그의 노하우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회갑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부사장은 젊은이들 못지 않은 향학열을 불태우고 있다. 1960년대 당시 고졸 학력은 지금의 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받을 시기였지만, 이 부사장은 대학에 미련을 못 버리고 사이버대학에서 영어와 경영을 공부해 영어는 이미 학위를 받았고 경영도 학위를 받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관심분야에 대한 공부도 열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적인 지식습득에도 열심이지만 업계를 위한 지식습득에도 게으르지 않다. 광운전자고를 졸업하고 웨어차일드세미콘닥터코리아에서 전자기술직에 종사할 때부터 관련 교육을 받는데 열심이었던 이 부사장은 인쇄업종에 종사하면서부터는 인쇄 관련 전문지식 습득은 물론 지식전달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인쇄업종에 종사하면서 최첨단 기술을 습득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려운 일인데 이를 전달하는 역할까지 무난히 수행해 왔다는 것은 인쇄업계로서는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부사장이 걸어온 길을 더듬어보면 첨단 인쇄기술의 선봉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쇄업계와 인연을 맺은 1970년대 말 컬러 스캐너를 보급하면서 최신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고, 이후 1980년대 말 매킨토시의 보급, 1990년대 중반 CTF의 보급, 그리고 2000년대에는 CTP의 보급. 인쇄업계의 변화하는 현장에는 항상 그가 같이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사장의 경력은 우리 인쇄 근대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그를 근대 인쇄역사의 산 증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처음에 컬러 스캐너를 국내 굴지의 인쇄회사에 보급하고 나서 그 회사들로부터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업계에 종사하게 된 것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색분해를 하는데 일주일까지도 걸릴 정도였는데 컬러스캐너가 보급되고 얼마나 작업이 빠르고 편해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부사장은 장비의 공급이 공급사의 부를 축적하기 이전에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공급사와 고객이 윈윈할 수 있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진정으로 좋은 일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경쟁사와의 관계도 선의의 경쟁은 물론 상생할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쇄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에게 이 부사장은 “인쇄를 거쳐 문화가 발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보는 표현, 전달/보급, 유지가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이 인쇄로 말미암아 가능했을 정도로 인류발전에 큰 몫을 담당해 온 인쇄업에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첨단 기술과 장비로 인쇄업에 임해야 하는 시대이므로 자조적인 인식은 버리고 자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글: 윤재호 부장 · 사진: 장홍일 기자)